

AUTUMN

2021

하늘꿈중고등학교 가을소식지



Contents

3	하늘꿈 서신	질그릇에 담긴 보배
4	하늘꿈 기획	영어가 안 되면, Heavenly Dream School
7	하늘꿈 버팀목	하늘꿈 법률교육, 법무법인 ‘광장’
10	하늘꿈 르포	열매가 모이는 날, 졸업생 모임
12	우리들의 이야기	5월의 푸르름, 그리고 따뜻함
15	하늘꿈 열매	민나경 졸업생
17	하늘꿈 소식	
18	공지사항	
19	후원자 명단	

° 2003년 개교한 국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1호.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 좋은씨앗이 운영하며 서울, 경기 지역에 10개의 가정형 기숙사 운영

° <수상> 통일부장관상(2001), 국무총리상(2002), 한국감리교선교대상(2002), 서울시장상(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2009), 세계여성자원봉사단체 소롭티미스트 루비상(2012), 자랑스런 정신동문상(2017), 경기도교육청 연구학교 우수 평가 및 교육감 표창(2019)

° <외부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0), 미국 국무부 ‘탈북청소년 리더십 프로젝트’ 선정(2011), 통일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매뉴얼’ 개발 공동연구(201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운영 외부평가단 평가 우수학교(2012),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3),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사업 평가 우수 등급 획득(2014), 공동모금회 북한이탈학생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5),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북한이탈학생 특성화교육 지원 사업 최우수 등급 획득(2016), 교육부 지정 통일준비(시범)학교(2016), 경기도 교육청 『연구학교』 선정(2017~2018)

° <하늘꿈학교 사명선언문> 하늘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자유민주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이루는 일꾼으로 양성합니다.

° <핵심가치> Integrity(온전함), Frontier Spirit(개척 정신), Incarnation(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Hope in Christ(소망의 인내), Next Generation(다음 세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점심시간은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는 일 년 넘도록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빼앗은 그 자리는 칸막이, 마스크, 소독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요. 저희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그마한 징후에도 통일이 가까이 온다는 기대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으로 방학을 맞고, 선생님들은 전화로 일일이 학생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친밀한 만남이 어렵고, 영성 프로그램도 멈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없어 방치되고 세상 문화에 참 쉽게 미혹되는 학생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 애가 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9절

어떤 악조건 속에도 진리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믿음이 성도들 가운데 견고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을 묵상하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20년간 걸어온 길이 때론 막힌 것처럼 보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볼 하늘은 열려 있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어떤 상황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의 길을 놓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여서 못하니, 한 사람씩 만나며 학생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솔하게 교제하고 부족한 공부, 그리고 영성을 성실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혼란하고 현실이 곤고한 지금, 하늘꿈학교와 마음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길, 평안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하늘꿈 학교장 임향자

영어가 안 되면, Heavenly Dream School

우리에게도 영어는 중요해요

한글을 떼기 전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사회가 가장 공들이는 교육 분야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일 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영어는 대한민국에 발을 디딘 탈북청소년에게도 예외 없이 중요합니다.

한국어에 깊게 스며든
외래어의 장벽

폐쇄적이고 제한된 지리적
환경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고 싶은 욕구 증가

수능 교과로부터 자유로운
탈북청소년이 배우고 싶은
1순위 '영어'



'아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빠르게 실력이 늘기를 바랍니다. 영어 시험만 잘 봐도 지필고사 결과에 만족할 정도로 대체로 영어에 대한 학습 동기가 높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외국인과 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상위권의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영어 교사 이수현)

가까이하기에 먼 영어

탈북청소년에게도 영어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이들에게 영어는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영어 조기 교육과 환경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북한의 홍보가 무색할 정도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입국 시기, 학습 경험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대부분 초등 정도의 기초 수준으로 북한에서 알파벳 정도까지 공부하고 왔거나 영어 학습 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 교사 이수현)

하늘꿈이 만들어가는 영어교육

하늘꿈학교는 영어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그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체계화한 교육과정은 단기간에 학습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규 수업, 수준별 수업, 개별화 프로그램이 자리 잡았고, 교사의 변경에 따른 혼란 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꿈 영어학습 ROAD MAP

구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정규 수업	교과서	Middle School English 1 or 2		Middle School English 3	High School English		영어 I High School English I
	부교재 (문법+영작)				문법 + 쓰기 Level 1	문법 + 쓰기 Level 2	문법 + 쓰기 Level 3
수준별 수업	고 1~2 수준별 수업				영어 기초반 학교 자체 개발 교재 사용 (영어 시작단계 학생들)		
	고 1~3 우수학습자 수업				영어 심화반 영작 (고등 영어단계 학생들)		
및 프로그램	전교생 수준별 프로그램	점심시간 영단어학습 기초 영단어 900(초등 수준) > 보카북1(중1 수준) > 보카북2(중2 수준) > 보카북3(중3 수준) > 수능보카북(고등 수준)					
	신청자 수준별 프로그램	SI 스터디 초등출판 > 중1 듣기 말하기 > 중2 듣기 말하기 > 이투스 강의					
		Step Up English (단문 영작) 단계별 영작 워크북 (초등~중등 수준)					
		전화 영어 수준별 1:1 영어 회화 (초등 ~ 중등 수준)					

수준별 수업

시간표에 가장 많은 시수를 차지하는 영어는 정규 수업과 수준별 수업으로 나뉘어 3명의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필과 수행평가를 포함하는 각 학년의 정규 수업은 난도를 낮추고 고급 문법 및 쓰기 수업을 배제하여 보다 중요한 내용에 집중합니다. 더하여 대안학교의 특성을 살려 탈북청소년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교 특성상 학기 도중 편입생이 많고 이에 따른 학습 격차는 늘 존재합니다. 격차로 인한 학습 포기를 막기 위해 정규 수업 외에 고1, 고2를 통합한 후, 기초반과 심화반을 나누어 운영합니다. 기초반은 발음, 영단어를 위주로 심화반은 문법, 주제별 글쓰기를 중심으로 집중도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화 프로그램

수업 외에도 학생 수준 및 필요도에 따른 개별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영어교육, 1:1 화상 영어 등 현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응하고 발전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영어 학습	SI 스터디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영단어를 매일 15개씩 암기하여 시험을 치르고 해당 점수를 영어과 수행평가에 반영. 만점자에게는 스티커 부여와 시상상을 통해 동기부여.	진단평가를 통해 문법 영역 중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SI 학습기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스스로 학습.
Step Up English	화상 영어
초등-중등 수준의 8단계 문법 문제집 중 학생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지도.	수강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와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준별 1:1 화상영어 프로그램. 원어민 강사와의 회화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함.

1:1 화상 영어 Q&A

Q1. 1:1 화상 영어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영어 교사 이수현 선생님

주 2회, 각 25분씩 원어민과의 1:1 화상 영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화영어 업체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회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여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 수요조사를 한 후 레벨테스트를 거쳐 강사와 교재가 정해집니다. 스카이프를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 학생이 1:1로 대화하는 수업은 영어 회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학생들이 신청하고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변화는 원어민을 대하는 마음과 영어 말하기 실력입니다. 탈북청소년 특성상 원어민과의 교류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상태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희망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꿈 영어통일캠프(EUC)가 진행되지 않아 영어 회화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없는 때에 필요에 따라 지원의 손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Q2. 1:1 화상 영어, 어땠나요?

A. (고3 최*현)

25분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짧은 듯해 과연 이게 영어 회화 실력에 도움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마친 후 대화하는 2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필리핀분이셨는데 필리핀 억양이 없으셔서 영어를 알아듣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황을 이야기하며 프리토킹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영어회화 교재로 수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친절해 온전히 내 힘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말은 전해야겠는데 언어가 안 되니 솔직히 답답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영어회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업하기 싫은 날도 많았지만 나에게 개인 영어선생님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긴장도 사라지고 어떤 흐름으로 말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YES/NO로 대답하기 급급했는데 full sentence로 대화를 하려고 꼭 because를 붙였습니다. 전화영어가 만들어낸 나의 변화에 매우 만족스럽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꺼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A. (중3-김*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에 비해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단어와 규칙을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더 힘든 건 발음이었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외운 게 아니죠. 상대방도 그 단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올바른

발음 훈련을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실시간 원어민과의 소통을 통해 부정확했던 발음이 조금씩 교정됐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화상 영어는 제게 참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도전엔 낯설고 두려움이라는 당연한 감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압도할 때 도전은 시작됩니다. 배운 적 없는 낯선 언어에 놀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통일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하늘꿈 학교에 있습니다. 🌈

법률교육을 통해 삶의 긍정적 태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불법을 곧 능력으로 여겼던 탈북청소년들은 법치국가인 한국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국은 국민의 대표들이 합의하여 법을 제정하고 나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지키는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임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을 10년째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들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윤경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77년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로펌입니다. 변호사 550여 명을 비롯해 변리사,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요.

저는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 복무를 대신한 3년간의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2015년에 광장에 입사하여 형사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데 특히 큰 규모의 기업고객이 형사 분쟁에 잘못 휘말리면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을 맡을 때면 큰 부담이나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광장에 입사한 바로 그 해부터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1년 반을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하늘꿈학교 법률교육에 참여해 왔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하늘꿈학교 법률교육을 총괄하는 광장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늘꿈학교에서 처음 탈북청소년을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북한이탈주민은 종종 만나볼 일이 있었지만, 북한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었어요. 무엇보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의 눈을 보면 저로부터 한 가지라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느꼈는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매년 강의를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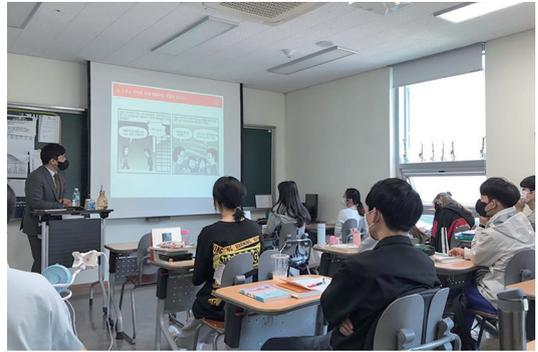
법률교육 시간에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하시나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기에 학생들에게 다른 분야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헌법 강의를 합니다. 에피소드는 하늘꿈학교에 첫 강의를 왔던 날이 마침 제 생일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날에 학교에 온 것이 기뻐서 “생일에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강당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갑자기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예쁜 마음씨를 온몸으로 느꼈던 뜻깊은 생일이었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무실 앞 로비



하늘꿈학교 법률교육 수업 중 (김영민 변호사)

탈북청소년에게 법률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탈북청소년들은 어린 시절에 법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다른 그 무엇이 지배하는 사회를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북한에도 법은 있지만 사회구성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해서 만든 법치국가의 법과는 다르죠.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알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또한 내가 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도 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법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저는 법률교육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법치국가의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믿어요.

법무법인 광장이 하늘꿈학교 법률교육 이외에 통일준비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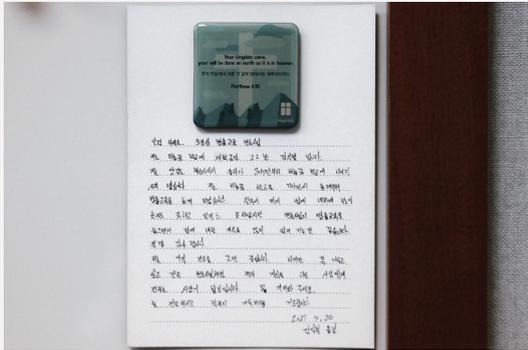
광장은 다가오는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통일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북한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광장 북한팀에서는 대북 투자·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하는 기업들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대북·통일 정책이나 법제를 수립하는 통일부 등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도 광장 북한팀 변호사들이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연초 광장에서 후원금이 매년 옵니다. 법률교육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후원금은 어떤 취지에서 보내주시는 건지요?

매년 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변호사뿐 아니라 전 직원이 참가하는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광장은 그 바자회 수익금의 일부를 하늘꿈학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은 하늘꿈학교 법률교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법률교육을 하면서 탈북청소년들을 이 사회의 일꾼으로 기른다는 하늘꿈학교의 미션에 공감한 바가 있으므로 후원을 통해서도 그 사업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특히 그 후원금이 전 직원이 참여한 연말 바자회를 통해 모인 것이라 더 뜻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식지 인터뷰 중



사무실 책상에 붙어있는 하늘꿈학교 학생 편지



(왼쪽부터) 변호사 오용수, 윤경섭, 나선하

법률교육을 하시면서 뿌듯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학생으로부터 정성 어린 감사 편지를 두 통이나 받았습니다. 2018년에 양강도 출신 여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연말에 답장을 써서 보내준 적이 있는데, 올해 봄에는 다른 양강도 출신 남학생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 사무실 책상 옆에 잘 붙여 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적당한 때에 답장할 예정입니다.

평소 북한이나 탈북민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지요?

저는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낯설지는 않아요. 광장 입사 전 3년간 법무관 생활을 했는데, 처음 2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그때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다음 1년은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일했는데 통일법제 및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률상담사례집,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사례집을 만들고, 북한법에 조예가 깊은 여러 교수님을 도와서 북한 민법·북한 형법 주석서를 편찬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그때 판문점과 하나원도 방문했고, 북한이탈주민도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었지요. 돌이켜보면 제가 하늘꿈학교에 오게 된 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통일되면 꿈꾸시는 일이 혹시 있으신지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 한 통일은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통일을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통일에 뒤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가장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부강한 통일한국을 이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거예요. 통일 이후 법치주의의 전통이 없는 북한에 법치주의를 이식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법률전문가 인력이 북한 지역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나라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주저 없이 북한 지역에 가서 법과 제도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데에 힘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나라가 통일된 미래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은 남들보다 미래와 통일을 먼저 만나는 위대한 행운입니다. 이 행운을 함께 할 기회를 주신 하늘꿈학교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 통일 한국에서 중역을 담당할 인재를 기르는 뜻깊은 사업에 저와 광장은 오랫동안 함께하겠습니다. 🌈

열매가 모이는 날, 졸업생 모임

1년에 한 번이기에 더 소중하고 아쉬운 졸업생 모임이 5월 교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일 기도회와 연계해 교제와 예배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010년 졸업생,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 졸업한 학생까지 고향집에 오듯 그렇게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반가운 만남부터 예배의 감동까지, 졸업생들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4단계 격상 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삶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

졸업생 모임을 갈 때마다 제 마음이 설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는 선생님들, “언니!” 하면서 밝게 반겨주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엔 곧 결혼하는 저에게 선생님들께선 조언과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기들과 동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줘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꿈은 제게 정든 고향이며, 기쁘고 힘들 때 함께해 주는 가족과도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하든 응원해 주는 가족이 있기에 늘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2019학년도 졸업생 유*이



그리웠던 학교 밥

저는 자취를 하면 요리를 하리라 다짐했지만 라면으로 겨우 한 끼 차려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졸업생 행사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도 기대했습니다. 식당엔 등갈비, 족발, 국수, 수박 등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음식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먹던 세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감사함을 졸업하고 깨달았습니다. 늘 건강을 생각해 준비해 주시는 영양사, 조리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매일 갈 수 없지만 잠시나마 고향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졸업생 이*성



너를 위한 퀴즈, "What's up?"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은 저를 3층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터뷰와 퀴즈를 하는데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두 문제의 정답을 맞지 못했는데도 상품 뽑기를 했습니다. 제가 뽑은 건 키보드였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맞건, 틀리건 선생님은 상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찍어 주신 예쁜 기념사진으로 이 시간을 소중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해 본 퀴즈 시간은 색다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졸업생 이*영



축복의 방

하늘꿈의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도를 받으며 매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이번에 처음 참여해보는 '축복의 방'에서 목사님과 신앙생활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선생님께 받았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8학년도 졸업생 오*성



믿음 생활과 복한을 위한 예배

하늘꿈 졸업생 모임은 대학교 4학년이 된 지금까지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특히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늘 제 가족 기도만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고향의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또,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가슴 벅차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일 통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

2017학년도 졸업생 최*진

하늘꿈 졸업생 모임에 참여한 태욱이의 하루가 궁금하시면,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5월의 푸르름, 그리고 따듯함

한창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나이에 외부 활동의 제한으로 학교 내에만 머물러 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매해 시행되던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전교생이 다 모이진 못하더라도 4인 1조의 소그룹 형태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른 더위에도 올림픽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올해 작품의 주제는 백일장 '따듯함', 사생대회 '공원풍경'입니다. 주제를 전달받은 학생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작품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개성이 강한 아이들만큼이나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심사숙고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깊은 생각 속에 만들어진 글과 그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단계 격상 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사생대회 최우수작(고등) 고등학교 2학년 강*철



[작가의 한마디] 코로나 때문에 사생 대회를 못 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날씨는 좀 더웠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올림픽공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한다는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한 야외 활동은 교실의 답답함에서 벗어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생대회 최우수작(중등) 중학교 3학년 김*청



[작가의 한마디] 이 그림에서 나무를 잘 표현하고자 했기에 나무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나무를 그린 경험이 많지 않아 대충 그릴까도 했지만 훌륭한 조각은 계속 빛어야 만들어진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자세를 잡고 눈에 보이는 줄기와 나뭇잎을 과장 없이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욕심내지 않고 그린 결과, 만족할만한 나무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엔 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백일장 최우수작(고등)

하지 못한 말

고등학교 3학년 최*명

오늘 날씨는 화창한 봄날 아니랄까 봐 맑고 따뜻한 해가 짹짹 내리쬐고 있다.
향긋한 풀 내음에 고향이 떠오른다. 할머니와 함께 나뭇 캐다 잠시 쉬며 맡은 그 냄새다.

어머니가 없었기에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라는 말을 먼저 했지만, 나는 아빠라는 말을 먼저 했다고 한다. 이런 나에게 할머니는 어머니가 되어 주셨다.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던 날, 나는 조금 특별했다.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갈 때 나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의 주름 많은 손을 잡고 들어갔다. 나는 너무 창피해 괜히 할머니에게 짜증을 냈다. “혼자 가겠는데 왜 따라왔냐고!” 이런 말을 하는 나에게 할머니는 허허 웃는 얼굴로 “손자 녀석 학교 데려다주는 게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라고 하셨다. 그 후로 나는 창피해 아이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혼자 다녔다.

공부를 잘못해 늘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했는데 할머니는 매일 학교 정문 뒤에 숨어서 나를 기다려 주시곤 했다. 나는 집으로 갈 때면 할머니와 나란히 걷지 않고 늘 앞서 걸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와 주곤 했다.

문제는 비 오는 날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허름한 비옷을 입고 교실까지 와서 손자에게 우산을 주러 왔다고 했다. 나는 너무 창피해 비 맞아도 좋으니 대신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오셨다. 나도 한 고집해서 우산을 펴지도 않고 집으로 갔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다. 왜 우산이 있는데도 비를 맞고 가는 건지, 이상한 놈 쳐다보듯 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뒤에서 걷지 않았다. 할머니가 뒤에 있는 게 싫었는데 안 계시니, 괜히 할머니가 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났다. 그리고 비가 와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비가 오면 우산이 없어 옷이 젖었다.

‘할머니, 한 번만 할머니의 주름 잡힌 손을 만져보고 싶어요. 이제는 할머니와 보폭을 맞춰 걷고 싶어요. 할머니, 천국에선 손자 생각 그만하셔도 돼요. 엄마와 할머니를 헛갈리게 한 할머니가 가끔은 미워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대신 받을 수는 없다는 슬픔이 더 커요. 할머니가 남겨준 추억은 모두 나를 위한 할머니의 사랑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다시 만나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울며 말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너무 늦게 말하지만, 할머니... 사랑합니다.’

[작가의 한마디] 할머니는 6.25 전쟁 속에서 7남매를 낳고 막둥이인 제 아버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빠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여러 사정이 있어 저는 할머니의 굵은 등에 업혀 자랐습니다. 집안에서 막둥이의 막둥이인 나는 그렇게 할머니 손을 우려먹으며 자랐습니다. 탈복 할 때 마음에 가장 걸렸던 존재도 할머니였습니다. 정이 깊었던 할머니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지금도 가슴 한편엔 언제나 할머니 생각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먼 산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그리습니다.



백일장 우수작(고등)

고향마을

고등학교 2학년 김*경

따뜻하고 아름다운 내 고향
길가에 외로이 홀로 있을 때면
다가와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던 친구들

허름하지만 정겨운 시골 마을
봄이면 길거리에 만발한 진달래
여름이면 마음을 맑게 해주는 푸른 들판

빨갭게 물든 가을의 단풍
추운 날에 내리던 빛나는 눈송이

고향 내 동네를 생각할 때면
함께 했던 친구들이 간절해지고
노을이 지는 저녁이면
함께 뛰놀던 친구들
아침 이슬 발로 덮고 다니던 그 시절이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그리워진다.

백일장 최우수작(중등)

따뜻함

중학교 3학년 김*청

나는 지금 너를 찾고 있어

넌 나에게 마치 오랜 친구를 떠올리게 해
너의 마음은 마치 푸른 숲과 깨끗한 시냇물,
착한 숲의 동물들 같아, 지금 너는 어디 있는 거니?

너의 성품은 마치 마른 땅에 내려주는 단비와 같고
어미 새가 새끼를 위해 큰 나무 위에 둥지를 지어줌 같아,
너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니?

너의 신념은 마치 휘어지지 않고 굽게 자라는 대나무 같고
언제나 한결같이 푸른 하늘과 깊은 바다가 떠올라
너는 어디에 사니?

너는 나에게 오겠지
부르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찾고 싶어

떠오르는 나의 오랜 친구여

[작가의 한마디] 이 시를 지은 이유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종이 한 장에 담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쓰는 내내 행복한 마음이었지만, 너무 그리운 마음에 고향에 가고 싶다는 갈급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마을의 풍경, 그리운 친구들만으로도 내 고향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가의 한마디] 주제가 따뜻함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자연의 푸른 숲, 단비, 둥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연은 제게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제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언제나 저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지만 늘 존재하고 당연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고 감사를 느끼지도 못하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제 마음을 담아 이 시를 지었습니다. 🌈



배움의 기쁨으로 시작된 간호사의 꿈을 가르침의 길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늘꿈학교 12회 졸업생
민나경

간호학과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 하늘꿈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민나경입니다. 한국에 온 지, 올해로 10년째가 되었네요.

북한에서의 삶이 궁금한데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저는 남동생과 둘이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13살이었고 동생은 9살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야 했지만, 하루 하루 먹을 것과 빨감을 구하느라 학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6년간 그렇게 살다가 20살에 탈북을 했고 21살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공부를 했나요?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되어있으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패스하고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도 저를 받아 주지 않았어요. 면접하시는 교수님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데 어떻게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했어요. 크게 낙담이 되던 차에 혼자 외롭기도 해서 북한에 있는 남동생과 아빠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브로커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겠네요?

그렇게 2년간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북한 동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한국에 안 오겠다고 하면서 그냥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 살 생각으로 일했던 지난 몇 년이 생각나면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많이 속상했죠. 직장 생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을 데려오겠다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 월급이 270만 원이 넘어서도 보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성향도 안 맞았어요.

여기 친구들은 일 끝나면 술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가 외롭고 우울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했어요.

하늘꿈학교는 어떻게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다니는 친한 언니가 공부한다는 책을 빌려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읽었어요. 많이 피곤해도 책을 읽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앞의 즐거움을 느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막막했죠. 나이 많지, 살 집도 없지. 그러던 차에 하늘꿈학교 졸업생 중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고 소개를 받았죠. 기숙사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입학했습니다.

언제부터 간호사라는 꿈을 꾸었나요?

북한에서 간호사는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에요. 배우지 않아도 북한에서 주사도 놓고 다 했어요. 아무나 하는 일이에요.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기는 했지만, 북한에서 '꿈'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고작 '당 간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일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 한국에 오니 제 또래는 다 대학을 다니면서 미래를 계획하더라고요. '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겠구나.' 생각을 했고,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갔다는 선배들이 취업도 못하고 딱히 하는 일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일을 찾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 알던 간호사랑 달랐어요. 맛있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해서 간호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대학졸업사진



대학 탐방



인문학 수업



홈 커밍데이

나에게 하늘꿈은

대학에 입학 후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겠어요.

아니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공부를 하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치 세 살 아기에게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책도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열 번, 스무 번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1학년 중간고사는 꼴찌였어요. 기말고사 때는 PPT를 통째로 외웠더니 성적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학년이 오를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공부의 두려움이 줄었어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었는데 막상 병원에서 일해보니 어떤가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환자가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체중이 40킬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살도 찼어요.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경이는 언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원에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믿지지가 않았는데 하늘꿈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들으니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에 화가 났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돈 계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져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난 제 삶 가운데 많았거든요.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뭔가요?

북한에서 살면서 사람의 밑바닥을 봤어요.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국은 자유가 있고 잘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 한국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신기하게 이곳에서 살고 있네요.

통일이 되면 어떨 것 같나요?

그리운 동생이랑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는 게 바빠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요새는 북한 친구들도 보고 싶고, 북한 생각이 많이 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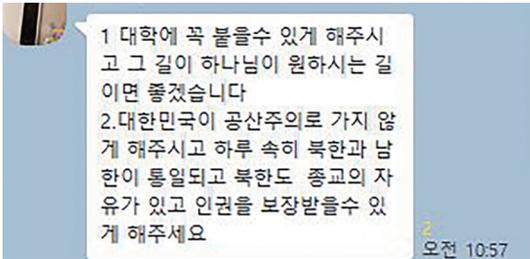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를 만큼 후원자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대입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후배들에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버티고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시간이 도와준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

I. 신앙 PART

하늘꿈학교 교육의 기초

종교 수업

학교에서는 매주 종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으로 1학기 마지막 수업은 비대면 수업임에도 의미 있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의 기도문을 바탕으로 만든 The Seeds 영상 '북한을 위한 40일 기도'를 시청한 후, 내가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2가지의 기도 제목을 작성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늘꿈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II. 지성 PART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노력

독후 감상 발표대회

2021년 1학기에도 어김없이 독후 감상 발표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45분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참가했는데요. 특히 중학생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첫 참가에도 떨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표 자료에 한자를 병기해 중국 출생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부터 『동물농장』까지 흥미와 교훈으로 채워진 책 속 세상을 함께 공유하며,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III. 진학 및 취업 PART

내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고3 7월 대입 전형

7월에 본격화되는 4년제 일반대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을 위해 3월부터 고3 학생들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진로에 따른 학과와 대학을 확정 한 후,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모의 면접을 보며 대학 입시를 실감했습니다. 7월 전형에 해당하는 9명의 학생 외에도 제3교 출생의 일반대 전형과 전문대 전형이 9월에 예정돼 있기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이라는 허들을 넘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IV. 남북통합 PART

사람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현장

정신여고 교류

2014년부터 함께 해온 정신여고와의 교류가 코로나로 인해 작년 단 한차례 비대면 교류에 그쳤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 두 차례의 교류가 코로나 4단계 격상 이전, 각 학교에서 안전하게 실시됐습니다. 하늘꿈에서 진행된 2차 교류에서 특별히 중국 출생 팀과 북한 출생 팀으로 나누어 각자의 고향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출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한 친구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북한 출생 팀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제도 김씨 일가에 대한 송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여전한함을 알렸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2학기에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V. 인성 및 건강 PART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교육부는 안정적인 2학기 학사 운영과 원활한 대입 전형 실시 지원을 위해 고3 학생과 교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고3 학생과 교직원도 7월 20일 수정 커뮤니티 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의 이상 반응과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로부터 하늘꿈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양교육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본교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직접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교육의 주제는 '음식을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북한에 비해 음식의 선택지가 많고, 대책 없이 담다가 양 조절에 실패해 의도치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량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하늘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실태 및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인덕학교 봉사

하늘꿈을 향한 사랑과 도움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꿈 독서 동아리 '디딤돌'반 학생들은 6월 인덕학교 학생들과 비대면으로 만나 작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교사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하며 받는 것보다 기쁜 나눔의 가치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지사항

2021학년도 하늘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14세에서 25세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북한이탈청소년)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사진(3*4 반명함판) 2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자료(검정고시합격증, 학력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하늘꿈중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입니다.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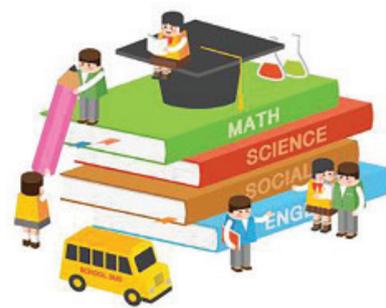
14~25세의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하늘꿈중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과교육 및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므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만 입학 가능합니다.



입학절차



▶ 기도해주세요

1. 하늘꿈학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2. 학생들의 여러 필요와 상황들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학기를 준비하며 변화에 합당한 교육을 설계하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소서.

후원자명단

<2021년 5-7월 후원자>

<개인후원>

NMK 강건 강경인 강대용 강문호(김은애) 강보경 강선영 강선희 강성환(곽난숙) 강수진 강승현 강영옥강유정 강윤모 강은주 강지원 강진홍 강진희 강홍재 경순미 고남숙 고문주(이정은) 고순애 고애순 고영진 고원복 고준호 고차원 고한승 고현희 곽원석 곽효진 곽희령 구경희 구병삼 구효민 권대영 권상영 권세영 권영미 권윤옥 권윤주 권은숙 권익환 권진희 권후자 길종두 김강석 김건철 김경근 김경옥 김경의 김경이 김경준 김경중김경하 김경현 김경환 김경희 김계자 김고운 김공순 김교식 김규미 김근희 김금숙 김기태 김기홍 김다인 김대열 김덕수 김동섭(플무원드림상사) 김동현 김만희 김목화 김묘선 김무수 김미경 김미경 김미나 김미라 김미선 김미자 김민규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보경 김보연 김상활 김서연 김선중 김선희 김성균 김성미 김성식 김성영 김성은 김성현 김세정 김수민 김수정 김순복 김순애 김승범 김승희 김신애 김아림 김아미 김아영 김여한 김연중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한 김영희 김예은 김옥자 김용미 김원아 김유라 김유리 김은경(홍은경) 김은덕 김은란 김은미 김은수 김은희 김은희 김민숙 김민애 김일권 김일희 김정미 김정애 김정하 김정호 김정희 김종익 김종훈 김주연 김주희 김준호 김준희 김준희 김지근 김지수 김지연 김지인 김진숙 김창석 김창숙 김창진 김태연 김필수 김필준 김하림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형애 김형준 김혜인 김화영 김훈성 김홍순 김희연 김희정 나옥 남광우 남금행 남소영 남정희 노금자 노상근 노재열 노태우 라승남 라주영 류극희 문수정 문영보 문윤태 문재은 문형석 박경수 박경희 박근양 박기완 박나래 박난희 박동소 박동찬 박미숙 박미영 박민호 박법도 박선여 박선영 박성숙 박성은 박성희 박세훈 박세호 박수경 박수영 박신영 박옥순 박유찬 박은숙 박은영 박재원 박정자 박종영 박주향 박지연 박지영 박찬수 박찬수 박천희 박태구 박하나 박한선 박혜경 박혜영 박호준 박효정 박효은 배경자 배민철 배선애 배연옥 배유미 배재범 배정인 배현규 백기범 백시연 백창현(박세정) 변창수 서동민 서신덕 서영옥 서원희 서은광 서정숙 서창오 성재우 소정섭 손경연 손민영 손성현 손영환 손유진 손주호 손혜경 송미화 송영훈 송예진 송은주 송재원 송준옥 송한준 송헌섭 송현석 송현혜(유성혁) 신기루 신다혜 신미령 신민우 신선원 신성순 신수지 신수진신승일 신윤미 신재경 신현주 신현호 심경희 심보라 심현식 안상미 안성희 안현희 안종현 안종현 안지영 안지혜 안진규 안진화 양승달 양영준 양유성 여인숙 여선아 오민아 오민택 오승택 오은수 오찬석 오화봉 옥승란 우선숙 우하영 우현정 원두연 원용선 원희석 위영태 위정현 유명준 유성은 유은유 유은미 유희희 유희영 유지영 유지혜 유현숙 윤경원(파님) 윤광무 윤동일 윤미선 윤미희 윤삼희 윤유한 윤지강 이건용 이경렬 이경옥 이경임 이경화 이경희 이광명 이기숙 이낙영 이능경 이두완(박미란) 이명현 이문기 이문종 이미지 이미지 이민근 이민옥 이병일 이병희 이부길 이상미 이선아 이선자 이선주 이선희 이성국 이성옥 이성우 이성우 이성희 이수미 이수화 이순구 이승용 이예은 이예진 이완준 이원미 이원순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은선 이은정 이은진 이인영 이인화 이재경 이재동 이재영 이재준 이재훈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인 이정희 이준필 이종경 이종원 이주연 이지애 이지은 이지은 이진규 이진숙 이진주 이철용 이태만 이태용 이태진 이학승(양영숙) 이하나 이혜든 이현숙 이현승 이현아 이혜숙 이호현 이효순 이후남 이후희 이후희 이희라 이희린 이희순 이희천 인지연 임경아 임다솔 임석원 임여진 임영숙 임윤아 임은 임은주 임재경 임현주 임형묵 임혜정 임희숙 장귀옥(장대보라) 장남식 장동현 장성옥(김춘희) 장세환 장승희 장순덕 장연지 장익진 장인석 장진실 장하나 전계화 전통기 전성이 전수정 전유화 전태숙 전효진 정경란 정길아 정동원 정미선 정미순 정미희 정민호 정병윤 정성운 정소정 정시영 정연양 정요한 정윤섭 정유진 정윤경 정은희 정재우 정재한 정재훈 정주화 정지영 정진근 정진주 정창우 정형자 정혁준 정현강 정희경 제갈민정 조명희 조미숙 조상준 조성라(부성범) 조성민 조연경 조영광 조영란 조오재 조은경 조재숙 조정희 조찬영 조한 조혁 조현옥 조현정 조혜련 조혜숙 조혜원 조홍희 조희준 주민선 주우진 주의숙 주혜정 지인혜 진미현 진희주 차은경 차홍선 채경영 채수련 천윤정 천향숙 최대환 최관규 최명옥 최민수 최선미 최성영 최성용 최성이 최성일 최수은 최숙희 최영순 최영자 최영향 최옥수 최윤정 최은실 최은주 최인섭 최준호(이은주) 최철훈 최해연 최형숙 탁지혜 태수길 태원우 하세호 하유진 하은희 하재익 하진희 하창직 하한(서승희) 하혜숙 한규화 한상열 한재희 한정에 한정희 한지연 한진용 한준자 한현진 한혜경(김기현) 한혜미 한재연 함해주 허순영 허영미 허혜림 현은주 홍가는 홍기욱 홍미영 홍요섭 홍원표 홍은주 홍정표 홍현정 홍혜진 황광옥 황은혜 황인자 황정희

<단체후원>

(사)아시아교육협회 (주)경도기술 (주)니코글로벌 (주)유한조경개발 (주)인터케어 (주)제이앤비컨설팅 (주)한화파워시스템 가락동부교회 강서침례교회 광성교회청나비선교회 권선제일교회 글로벌엘리미션 기쁜교회 기업은행 사회공헌부 남산감리교회 내동교회 내수동교회 능곡제일교회 더사랑의교회 북한선교부 더프레임종합건설 돈암감리교회 동광교회 동송교회 미아중앙교회 반석교회 북한현성결교회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사랑과은혜교회 사랑하는교회 산성교회 삼성교회 상계광림교회 새빛전원교회 생수의 강 기독교회 서문교회 선단화국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북한선교국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3속 선한목자교회젊은이교회 성남제일교회 세신교회 시흥하늘꿈교회 신촌감리교회 신촌장로교회 아돌람선교회 아산병원진단검사의학과 업성감리교회 영동교회 예수님의사람들교회 육도교회(원성용) 은누리교회 무릎기도회 와이즈스터디 우리들교회 일산광림교회 정동제일교회 제자들교회 주님사랑교회 중국교회 지구촌교회 목장지구촌교회 통일선교회 진남제일교회 참빛교회 최기은&안미라군댄스 통일저금통 포트웨인한인제일장로교회 하능가죽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사회봉사회 한나회 한빛교회 할렐루야교회통일선교 함께지어가는교회 행복나무교회 혜성교회

<물품후원>

다비육종 성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송연 송진순 아른 오로교회 원정하 이경원 이정례 임유경 정동제일교회 정신여자고등학교 조혜숙 지구촌교회 통일선교팀 홍미영

하늘꿈중고등학교에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름은 신지 못했지만, 학습 봉사, 주방 봉사 등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위 후원자 명단은 후원금 계좌에 입력된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후원 관련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하늘꿈학교로 연락 주시면 우편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 (사)좋은씨앗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꿈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방법>

1. 하늘꿈 프렌즈(자원봉사자)

주방 봉사, 1:1 과외 지도, 행정 봉사 등
(하늘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www.hdschool.org 에서 신청. 요청 시 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2. 후원

정기 후원(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물품 후원(식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기념일 후원 등
후원계좌_ 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 좋은씨앗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

연락처 | 031)758-2071 | www.hdschool.org

* TOV PROJECT

하늘꿈학교 소식지는 종이와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